즉시 배포용: 2019년 11월 3일 **ANDREW M. CUOMO** 주지사

CUOMO 주지사, 뉴욕주가 위탁 돌봄 및 입양 기관이 성소수자(LGBTQ) 가정을 차별할 수 있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을 차단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

Cuomo: "Trump 대통령의 제안은 차별적이고 우리의 가치에 모순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. 무수히 많은 어린이가 사랑하는 가족과 집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가지지 못하게 하므로 비정하고 지독합니다. 대통령이 이 규칙을 계속 추진할 경우,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"

"다시 한번 Trump 행정부는 성소수자(LGBTQ) 지역사회가 힘들게 얻은 권리와 보호를 공격하고 있으며, 이번에는 위탁 돌봄 및 입양 기관에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조치를 제안했습니다.

Trump 대통령의 제안은 차별적이고 우리의 가치에 모순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. 무수히 많은 어린이가 사랑하는 가족과 집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가지지 못하게 하므로 비정하고 지독합니다. 대통령이 이 규칙을 계속 추진하면,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
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, 뉴욕주는 미국의 평등의 불빛으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. 우리의 인권법(Human Rights Law) 및 입양 규정은 입양을 포함하여 성소수자(LGBTQ) 지역사회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. 이런 차별의 희생자라고 느끼는 성소수자(LGBTQ) 뉴욕 주민들은 주 인권국(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)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.

Trump 행정부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. 뉴욕이나 미국에는 증오가 설 자리가 없으며, 성소수자(LGBTQ) 뉴욕 주민들이 부모가 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."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구독 취소